

중국에서 주목받는 스터디 브이로그(Study Vlog) 속 한국 여성 이미지 분석

담옥천*

국문초록

최근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한국 여성과 그들의 스터디 브이로그(Study Vlog)가 논의되고 있다. 그 영상들은 한국 젊은 여성들의 긴 학습 시간을 기록하고, 그들의 단호한 목표 의식과 탁월한 실행 능력을 보여준다. 그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외모 관리, 건강 유지,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으로 중국에서 '전자 닭 피'로 극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여성의 정신은 한국의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사회의 강력한 사회적 경쟁 체계는 개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가져다주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반면에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는 경제, 사회,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성공적인 이상적 이미지를 창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건강을 중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한국 여성은 바로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의 생존 상태와 성공적인 모델의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신자유주의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며, 국내 사회주의와 공존하는 모순 단계에 있다. 젊은이들은 사회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신자유주의의 사회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따라서 두 가지 모순된 이념 아래에서 불안과 혼란이 생긴다. 중국의 젊은이들의 부족한 그러나 새로운 자유주의적 주체성은 한국 여성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며, 따라서 그녀들에 대한 동경이 발생한다.

주제어: 스터디 브이로그, 한국 여성 이미지, 신자유주의, 사회적 경쟁, 사회주의

* 한양대학교 대중문화·시나리오학과 박사수료생(Ph.D. Student, Department of Mass Media and Scenario Contents, Hanyang University)

접수일(2024년 3월 26일), 게재 확정일(2024년 4월 8일)

I. 들어가며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의 다수의 젊은 여성 스터디 블로거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블로거들을 일괄적으로 ‘한녀(韓女)’로 지칭하며, 그들이 대표하는 ‘한국 여성 정신’은 중국 인터넷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국 여성들의 스터디 브이로그(Study Vlog)가 주효했다. 브이로그 주인공들은 매일 긴 시간과 고강도로 학습하는 한국 여성으로, 동영상은 집, 카페, 도서관 등에서 촬영되며 요리, 식사, 운동, 취미, 친구들과의 모임 등 여러 측면의 일상이 함께 담겨 있다. 이들의 스터디 브이로그는 정교하고 세련된 물품, 깔끔하고 편안한 집 환경, 그리고 분위기 있는 학습 장면을 특징으로 하며,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뚜렷한 목표 의식과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며, 매일 학습 과목과 시간을 자세하게 계획하고, 그들의 하루는 매순간 철저한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실행된다.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 여성들은 섬세한 화장을 유지하고 건강과 체형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시간을 내어 모임을 참여하여 친구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스터디 블로거에는 어떤 마력이 있어, 보고 나면 공부에 대한 중독이 최대로 이르게 된다”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으며,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한국 여성을 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¹⁾ ‘한국 여성은 왜 그런지를 의심하는 것 - 의심하다가 점점 그녀들을 이해하게 되고 - 결국은 한국 여성처럼 되고 싶어한다(质疑韩女, 理解韩女, 成为韩女)’에서 ‘한국식 미친 공부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태그들은 다양한 소셜 플랫폼에서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전자 닭 피’²⁾가 되었음

1) “早上5点起, 每天学习10h+ : 学习博主们为什么还上不了岸?”, 《娱乐资本论》, 2023. 09. 15.

2) 전자 닭 피(电子鸡血): 중국에서의 신조어. 전자 기기를 통해 얻은 자극, 동기부여 또는 흥분감을 묘사하는 네트워크 용어로, 디지털 세계에서 자극과 흥분을 얻는 느낌을

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스터디 브이로그에서의 한국 여성 캐릭터와 그 형성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 사회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한국 여성이 중국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찍어 타인과 공유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³⁾ 2012년, 유튜브의 창시자 Jawed Karim가 최초로 의미 있는 브이로그를 만들었다. 브이로그는 강력한 소셜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급속하게 유명해졌으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2016년, 브이로그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중국의 브이로그 사용자 수가 이미 2.49억 명에 달해 중국에서는 브이로그가 비교적 성숙한 창작 장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⁴⁾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 중 하나인 빌리빌리(www.bilibili.com)는 청년들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동영상 커뮤니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많은 중국 젊은 세대 사용자들이 모여 ‘B 사이트’로 불리고 있다. B사이트는 중국 브이로그의 발원지이자 전파 기지로서 체계적인 분야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중국 학계는 브이로그 콘텐츠 생산의 세분화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수직화되지 않고 정교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과 특정 주제의 브이로그에 대한 관심은 적으며, 공부 유형의 브이로그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⁵⁾ 위창(于畅, 2021)은 커뮤니케이션학의 시각에서 스터디 브이로그의 전파 로직과 발전 전망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제작

표현한 것이다.

3) 윤지영·유지윤·이장석, 「유튜브 브이로그 이용 동기 및 이용자 특성이 이용 만족 및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제4호), 2020, 189-201쪽.

4) 武怡静, ‘媒介景观视域下学习类Vlog的“自律”塑造与呈现——以b站学习类Vlog为例’, 华东师范大学硕士, 2023, p. 8.

5) 武怡静, Ibid, p. 3.

자의 비디오 제작이 학습 과정 기록, 자아 표현 및 형성, 자아 인식 및 사회적 가치 획득, 경제적 이익 주도 등의 측면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반면에 브이로그 소비자들은 브이로그 시청을 통해 취미와 자기 대입, 학습 동기 부여, 몰입 및 동반감의 정신적 요구, 집단 인식과 소속감 획득 등의 특성을 얻는다고 주장한다.⁶⁾ 공슈통, 위펑량(孔姝潼, 于鹏亮, 2022)은 빌리빌리의 학습 생활 유형 블로거인 팡짱짱(彭酱酱)을 사례로 들어, 빌리빌리의 학습 생활 유형 브이로그가 팬 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생활 유형 브이로그가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며, 매체 기술이 시공간 콜라주의 특성을 가져와 공간의 재생산과 전환의 힘을 갖는다고 밝혀졌으며, 이러한 중재 작용은 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팬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은 블로거를 인정하고, 그들의 공부 방법, 습관 및 생활 방식을 모방하여 결국 더 나은 자기 목표를 달성한다.⁷⁾

한국 학계에는 현재 브이로그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특히 스터디 브이로그와 같은 유형의 연구는 아직 공백 단계에 있다. 일반적인 브이로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윤지영, 유지윤, 이장석(2020)의 연구는 관람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나 인물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브이로그에서 공감 또는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들의 브이로그 시청 동기는 오로지 오락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보 획득에 대한 요구도 포함된다. 동시에 브이로그 시청은 다른 사람의 관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브이로그 주체에게 동질감을 느낄 때, 그들과 브이로그 내 인물 간 강한 감정적 연결이 유발될 수 있다.⁸⁾

6) 于物, '传播学视域下B站学习记录类Vlog的传播逻辑与发展前景探析', *新闻文化建设* 000 (009), 2021, pp. 158-159.

7) 孔姝潼, 于鹏亮, 'B站学习生活类视频博客对粉丝群体的影响——以UP主彭酱酱为例', *国际公关* (04), 2022, pp. 134-136.

8) 윤지영·유지윤·이장석, 「유튜브 브이로그 이용 동기 및 이용자 특성이 이용 만족 및

중국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한국 여성 브이로그 대부분은 원래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되었지만, 중국에서는 빌리빌리가 스터디 브이로그의 주요 전파 플랫폼이다. 본 논문은 이 두 플랫폼에서의 한국 여성 브이로그 상황을 대략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스터디 브이로그에서의 한국 여성 캐릭터가 중국에서 주목을 받는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측에서 아직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사회적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한국 여성 정신’은 미디어가 빠르게 포착하여 보도했지만, 현재 발견된 자료는 웹사이트와 신문에 기반한 정보만 있으며 체계적인 학술 연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 문화 관련 연구와 중국 내 웹사이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스터디 브이로그의 ‘한국 여성’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할 것이다.

II. 스터디 브이로그 속 한국 여성 이미지 분석

스터디 브이로그에서 주목 받는 현상이 된 한국 여성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스터디 브이로그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유튜브 검색 창에 ‘스터디 브이로그’를 입력하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동영상과 동영상 블로거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초기 검색 결과를 보면, 많은 블로거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며 때로는 초등학생들도 있다. 또한, 이러한 블로거들의 관심도와 동영상 조회 수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고등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보여주고 시청하는 데 기본적인 매력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방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데이터 표

〈표 1〉 유튜브에서 ‘스터디 브이로그’로 검색한 후 한국 여성 블로거의 기본 정보(대학 이상)

@ID	팔로우 수	보유 동영상 수	동영상 총 조회수	스터디 브이로그 최대 조회 수	신분	가입시간
정이의 다락방 zxeong	1560	4	60,399	2,3w	임용고시	2013.1.6
Deangeun	21.4w	102	13,394,852	34w	법대생(자퇴)	2014.3.23
효빈HYOBIN	31w	66	30,949,551	62w	의대생	2019.9.22
쭈와와_zzuwawa	3010	25	123,119	1.2w	공시생	2013.2.4
유칼립투스 Eucalyptus	48.8w	68	59,143,999	47w	의대생- 피부과	2014.7.6
Eunice 유니's	3.41w	144	2,392,277	44w	캐나다유학- 심리학과	2020.1.9
우아ooa	9.14w	16	4,132,634	254w	의대생-의생	2021.3.30
딤시Dipsi	6890	10	246,790	9.5w	간호대생	2023.8.22
보갱Bogyung	5.23w	75	4,066,790	40w	의대생- 서울대병원 소아과실습	2021.8.8
너단UDAN	3.23w	37	512,052	3.1w	공시생	2021.11.20
LIN 린	5840	28	244,302	2.7w	의대생	2021.9.21
디아Dia	74.8w	59	54,902,694	415w	의대생	2020.2.10
선선sunsun	13w	27	8,610,027	249w	의대생	2012.7.3
사이sa_yi film	3.01w	19	1,131,738	28w	수험생	2022.4.21
공부혜영 studywithhy	1.57w	40	1,618,505	19w	공시생재수생	2021.7.10
동동Dongdong	1880	31	116,771	1w	간호직공시생	2023.7.30
Jennylog	25.1w	50	12,233,985	212w	연세대의대생	2020.2.29
가든gardenxstudy	9330	37	531,688	5w	공시생재수생	2022.8.22
디니Deeni	6590	28	376,455	9.7w	대학생	2023.3.9
Good믈닝	1870	20	175,454	3.3w	-	2021.11.3

출처: 저자 직접 작성

시를 생략했다. 플랫폼에 표시된 동영상 내용 순서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한국 여성 스터디 블로거를 선택하고,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표 1〉의 내용과 같다.⁹⁾

〈표 2〉 빌리빌리 사용자 @Stella的小宇宙가 추천한 한국 여성 블로거 명단 및 추천 이유

@ID	신분	추천 이유
너단UDAN	공시생	하루 평균 공부는 13시간이며, 한 권의 기출 문제집을 4시간 만에 끝내고, 한 권의 책을 5시간 만에 공부한다.
선선sunsun	의대생	시험 전에는 매일 3시간만 자고, 말투가 부드럽고, 패션 감각이 탁월하며 매일 깔끔해 보인다.
Jennylog	연세대의대생	매일 10시간을 공부하고, 직접 요리하며, 개를 키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
리우RE WOO	법대생	휴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13시간씩 공부하며, 휴식 시에는 운동을 하며, 먹는 모습을 보면 매우 식욕이 좋다.
우아ooa	의대생	매일 18시간씩 공부하며, 보통 일도 하면서 공부를 지속하고 있다.
오동동 Odoongx2	공시생	일주일에 100시간을 공부하며,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며 많은 음식을 공유한다.
유칼립투스 Eucalyptus	의대생-실습	낮부터 밤까지 공부하며, 창 밖 경치가 아름답고, 학습 분위기가 느껴진다.
Deangeun	연세대 법대생	외모가 뛰어나며, Vlog는 생동감이 있으며, Notion 테이블을 훌륭하게 제작한다.
빈빈Empty(중지)	연세대 의대생	매일 4시간만 자고, 수다쟁이이며, 매우 사랑스럽다.
비마쌤Bemyself	물리 선생님	새벽 6시에 공부를 시작하여 높은 집중력과 자기 규율을 유지하며, 일상 생활에는 의식있는 일련의 행위가 있다.

출처: 저자 직접 작성

9) 스터디 브이로그 - YouTube,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8A%A4%ED%84%B0%EB%94%94+%EB%B8%8C%EC%9D%B4%EB%A1%9C%EA%B7%B8(검색일 2024년 03월 12일). 선택된 데이터는 주로 스터디 브이로그를 중심으로 한 채널 내용을 가진 블로거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극소수의 남성 블로거, 관심이 낮고 주목받지 않는 블로거, 나이가 너무 어린 블로거, 아직 스타일이 형성되지 않은 블로거 등은 제외되었다. 이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표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상황을 대표하거나 순위를 매기거나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중국 인터넷의 한국 여성 스티디 브이로그 데이터를 조사할 때는 빌리빌리의 상황을 참고한다. 빌리빌리에 유포된 스티디 브이로그는 일부 빌리빌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고 올린 동영상이며, 언어와 플랫폼 제한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유튜브와는 관심도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빌리빌리 사용자인 @Stella的小宇宙는 10명의 한국 여성 스티디 블로거를 추천하여(표 2) 중국 국내 스티디 브이로그에서의 한국 여성에 대한 관심 방향을 참조할 수 있다.¹⁰⁾

한국 여성 스티디 브이로그가 중국 인터넷으로 옮겨지면서 분산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기를 정확한 데이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부가적인 사항을 통해 중국 네티즌들의 그들에 대한 인상을 알 수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여성에게 다정하게 별명을 붙인다. 예를 들어 @너단 UDAN은 네티즌들에게 ‘미친 언니’로 불리고 @Jennylog는 ‘파워 언니’로 불린다. @비마썸 Bemysself는 아침 6시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여섯 시 언니’로 불린다. 또한 @보갱 Bogyung은 ‘슈퍼 언니’로, @일상기록은 ‘성급 언니’로 불린다. 이들은 대중적인 이미지로서 다른 한국 여성들과 함께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 여성 우주’를 형성한다.¹¹⁾ 그러나 빌리빌리와 중국 내의 공론을 보면,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한국 여성 블로거는 @너단 UDAN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의 빌리빌리 비디오 컬렉션은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녀의 유튜브 팬 수는 3.23만 명에 불과하며, 비디오 총 조회 수는 50만 회를 넘지 못하고 있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은 다들 빌리빌리에서보다는 유튜브에서 그녀를 지원하자고 한다.

@너단 UDAN은 한국의 공무원 시험 블로거로, 공부하는 방식이 매우

10) 学不进去就看看韩女vlog! 10个韩国学习博主激发学习欲!, https://www.bilibili.com/video/BV1v8411i7LB/?spm_id_from=333,337,search-card_all_click&vd_source=93c0375ad0a275297e1e7308caa751ad(검색일 2024년 03월 13일).

11) “自律的韩女, 成了年轻人的新榜样”, *Vista成长实验室*, 2023, 10, 31.

열정적이어서 중국 팬들에게 ‘미친 언니’로 불린다.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 동안, 그녀는 매일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기출문제집을 끝내고, 5시간 근대사를 공부했다.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은 50시간이었으며, 매일 평균 10시간을 공부했다. 식사와 운동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도 거의 항상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바쁘더라도 운동은 계속하는데, 한 번은 40분 동안 자전거를 탔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신이 25번째로 선발되었으나, 선발 인원이 20명으로 축소되어 불합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 해 공무원 시험에 재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영상은 빠른 편집과 수십 배의 가속 처리를 통해, 활기 넘치고 긍정적인 배경 음악과 함께 10분 짜리 영상 안에 거의 10시간에서 몇십 시간에 달하는 공부량을 담아내고 있다. 그녀의 영상 콘텐츠는 자극적이고 열정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그녀의 ‘미쳐가는’ 정신과 현재 중국의 온라인 소셜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미쳐가는’ 감정과 결합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UDAN 이외에도, 중국 네티즌들에 의해 ‘여섯 시 언니’로 불리는 @비마썬Bemyself, 연세대 의대생 @Jennylog, ‘슈퍼 언니’로 불리는 @Bogyung, 의대생 @선선sunsun 등이 중국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일부 소셜 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여성 블로거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스터디 브이로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그들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목표 의식과 자기 학습 주도 능력을 지니며, 학습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강한 의지력을 발휘한다. 그들은 학습 및 수면 시간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공부하며, 어떤 사람은 하루 10시간, 13시간 또는 18시간까지의 학습 시간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수면 시간은 줄어들어, 최단 수면 시간은 3시간에 이르기도 한다. 동영상 속의 한국 여성들은 종종 시계나 전자 제품을 사용하여 현재 시간을 자주 확인하는데 ‘시

간'은 그들이 특히 주의 깊게 다루는 측면 중 하나이다. 또한, 그들은 일반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해당 과목을 엄격하게 학습하며, 그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인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각종 문구점 및 생활 용품점의 문구 코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계획표와 메모지가 판매되어, 계획 수립과 실행 능력이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 이미 깊게 뿌리내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큰 학습 압력과 강도에 직면해 왔으며, '사당오락'이라는 말은 마치 한국 고등학생들의 징크스에 더 가깝다. 한국 사회는 교육을 극도로 중요시하며, 일반 시민들도 사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학원 시장의 규모는 국가 군비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크다.¹²⁾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브이로그 속 한국 여성들은 내적 소모가 적어 보이며 고도의 자율성과 기획 능력을 나타낸다.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학습에 전념한다.

둘째, 스터디 브이로그에서의 대다수 한국 여성들은 이미 눈에 띄는 신분을 가졌거나 향후 이러한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티즌이 추천하는 한국 여성 블로거들을 살펴보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의대생 또는 법대생으로, 대다수의 인상 속에는 이들이 미래에 높은 연봉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즐기리라 예상된다. 또는 일부는 '연세대'와 같은 명문 대학 출신으로, 명문 대학의 필터와 헤일로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는 '공시생'과 같은 신분일 수 있는데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보장된 직업으로, 현재 한국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의 이상적인 직업 목표이다. 동영상에는 두꺼운 전공 교재와 빼곡히 필기된 노트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이미 습득한 지식이 또는 앞으로 습득할 지식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난이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전

12) "韩国式“发疯”：不生孩子，玩命考公”，《凤凰周刊》，2023，10，17.

문성을 지닌 분야임을 상징한다.

이것은 또한 한국 여성들이 수많은 학습 블로거 가운데 돋보이며 추앙 받는 이유이다. 그들이 가진 부럽도록 하는 신분과 이에 대한 충분한 헌신은 그들이 성공자일 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공은 그들의 실제 학습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거짓된 과시나 위선적인 연기가 아니다. 이들 블로거 중에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여 새로운 사회 신분에 진입한 이들도 있다. 그들의 동영상 콘텐츠는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함으로써 성공을 이루는 진정한 노력을 보여준다. 연세대 학생이 되거나 성공적인 삶의 문턱에 선 법대생이나 의대생이 된 것은 그들이 과거의 입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확증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상위권’임을 의미한다. 그 뒤로도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입증되면 원하는 직업과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성공’의 오르막길을 계속 반복한다.

셋째, 한국 여성들은 우월한 생활환경 조건을 상징한다. 한국의 외모 중심주의는 종종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러한 외모에 치중하는 것도 브이로그가 세련되고 심플한 미학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거나 화장을 하지 않아도 우아한 체형, 매끈한 머리카락, 부드럽고 하얀 피부 등 디테일에서 좋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가정이 장기적인 체형 관리와 외모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영상에서 아이패드나 LG 컴퓨터, 헤드폰과 같은 학습에 사용되는 고급 전자 장치들도 자주 볼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이 공부하러 나가는 동영상에서는 주로 분위기가 강조된 카페 등 장소를 선택하며, 일부 동영상에서는 학습 중에 아름다운 창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로 등장한다. 두께가 몇 센티미터나 되는 전공 서적에 이미 지불한 학비와 학원비까지 합치면 한국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소모하는 것이다. 심지어 고화질이나 몇 시간 길이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촬영 및

편집 장비가 필요하다. 한국 여성의 일련의 동영상 생활 전시의 이면에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한 결과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넷째, 학습 중인 한국 여성 캐릭터는 다양한 생활 장면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에는 한국 여성이 요리와 식사, 영양제 복용, 피트니스 운동, 친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장면들은 단순히 공부에만 집중하는 이미지에서 ‘학습과 일상을 모두 즐기는’ 이미지로 전환된다. 그들은 뛰어난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며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에도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친구와의 만남에서는 높은 사교성을 보여주었다. 블로거 @Bemyself는 동영상에서 자신의 체력이 약해 매일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상황을 소개했다. 그녀가 사용하는 비타민 제품은 독일에서 제조된 ‘비타민 속 에르메스’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한국인들이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돌연사 예방 영양제 세트’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 고안되어 고강도 업무와 학습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헬스 클럽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자정 한두 시에도 여전히 운동하는 젊은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 동영상에서는 가끔 밤늦게까지 학습 후에도 즉시 헬스장으로 이동하여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끔은 친구들과 외식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장면도 찾을 수 있다.

위의 특징 중에서 우리는 견고한 가정 기반을 가지며 충분한 노력과 결의, 계획 수립 및 강력한 실행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생활을 즐기는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그들의 실제 삶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단지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의 가상적인 표현으로, 관객이 보는 무대는 세심하

게 포장되고 장식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보이는 것처럼 실체가 아니다. (...) ‘생활’은 아름다운 객체로 존재하게 된다.”¹³⁾ 하루에 고강도의 학습, 극도로 적은 수면, 엄격한 생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매일 세련된 화장을 유지하며 운동, 요리, 식사, 친구들과의 만남에 시간을 할애하고 동영상 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을 단순히 하나의 캐릭터로 간주해야 한다.

III. 스터디 브이로그 중 한국 여성 이미지 형성 원인 분석

1.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배경

1960년대에 국가적으로 빈약해진 경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국가의 경제생활을 완전히 통제하고 조정하는 구조적 방향을 통해 시장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정부가 설정한 발전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했다. 정부의 지도 아래 한국은 경제 대발전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역사상 유명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시기에 한국 정부의 합리적인 산업 정책, 권위주의 정권의 강력한 추진, 그리고 많은 기업가와 민중의 고투가 한국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¹⁴⁾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며 국내 경제 구조는 점차 복잡해졌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은 국가 산업 구조의 불균형, 중공업 비율의 불균형, 그리고 과잉 투자로 인한 생산 과잉 등 몇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시작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당시의 전두환 정부는 의도적으로

13) 孔姝潼, 于鹏亮, *ibid.*, pp. 134-136.

14) 李宁, ‘后经济危机时代新自由主义在韩国的发展’, *辽东学院学报: 社会科学版* 12(6), 2010, pp. 142-147.

신자유주의 제도를 추진하였고, 고평가된 환율을 낮추고, 특혜 대출을 취소하여 자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촉진했다. 국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직접 투자를 자유화하고, 상업 은행의 민영화를 실시하였으며, 비은행 금융 기관과 지방은행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 시기에 시장 요소의 도입과 정부 개입의 상대적 축소로 인해 한국 경제 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경제 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¹⁵⁾

한국의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서양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성과를 나누고자 했다. 1990년대 초, 미국과 국제 통화기금의 강력한 압력 속에서 한국은 핵심 경제 과정에 대한 통제를 더욱 완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외국 은행과 투자자가 한국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은행에 대한 규제를 줄였다. 이러한 정책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단기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¹⁶⁾

1997년, 한국이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휘말리면서 외국 은행과 투자자들은 한국에 약 600억 달러의 단기 차관을 즉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은행 시스템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한국은 570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받으면서도 까다로운 차입조건을 수용하여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가까워질 것을 약속했다. 1997년 IMF 위기는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신자유주의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은 진정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여겨진다.¹⁷⁾

15) Ibid.

16) Ibid.

17) Ibid.

한국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핵심 내용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과도한 개입에 반대하며, 민영화, 규제완화, 점진적 세금 철폐, 노조 약화 등의 정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증가로 대규모 실업과 감원이 심해지고 명예퇴직, 비정규직이 늘면서 고용 안정성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 심화, 사회 양극화 심화, 신빈곤층 출현 등의 요인도 사회에 많은 불안정을 가져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발전의 고속도로에 신속히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IMF 위기가 촉매제가 되어 한국의 신자유주의 사회 진입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이후 한국 사회 발전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공동체가 해체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었으며 대신 ‘개인적’ 차원이 부상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한다. 1970-80년대의 공식적 산업화 시기에도 개인은 여전히 공동체에 종속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과 공동체 간의 연결에서 공통감을 형성했다. 이때의 한국 사회는 아직 개인화되지 않은 사회였으며, 보다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¹⁸⁾ 그러나 1987년에 시작된 사회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가족 공동체주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부상으로 개인의 차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IMF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매 순간 생존에 위협을 느끼며 집단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해진 것이다.¹⁹⁾

신자유주의는 체제의 전환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미덕의 기준

18) 권용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재구성 시도」, 『사회와 철학』 제28호,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105-130쪽.

19) 김경준·이윤석,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탈도덕화: 공정성, 순수성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5권(제2호), 2021, 29-59쪽.

을 변화시켰다.²⁰⁾ 그 결과, 이것은 ‘문화’의 형태로 진화하여 개인의 규범, 가치관 및 미적 취향을 지도하며, 그것이 이념으로 개인의 몸과 마음을 파고든다. 역사학자 김동춘은 1997년 이후의 한국 사회를 ‘기업사회’로 비유했다. 과거 기업에서 사용하던 ‘경쟁력’, ‘유연성’, ‘구조조정’, ‘도덕적 해이’ 등의 용어들이 점차 일상 속 표현으로 스며들면서 이는 한국 사회가 ‘기업사회’로 변모했음을 직관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소위 ‘기업사회’는 ‘이윤 추구가 사회의 목표가 되고 사회 조직이 기업에 수렴하며 사회 구성원이 소비자의 역할만 하는’ 사회이다.²¹⁾

신자유주의 세대의 생존주의자들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엄격한 강박적인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경쟁을 전제로 한 극단적 배제 이념을 추구한다. 생존이라는 절대적 가치관 하에서 그들은 생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에 의탁하지 않고 경쟁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회적 에토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²²⁾ 그들은 생존의 도전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대의 ‘생존자’ 주체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및 규범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 성공 및 리더십에 대한 책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선호된다.

30년 넘게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온 한국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오늘날 한국은 ‘성장’이 불가능한 사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주택 구입, 결혼, 육아 등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른바 ‘오포’와 ‘칠포’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한국을 ‘헬조선’이

20) 석승혜·장안식, 「사회집단안의 소속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9권(제3호), 2016, 6-51쪽.

21) 김동춘,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 서울: 길, 2006, 22-31쪽.

22)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제84호, 2009, 12-39쪽.

라고 부른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녀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는 ‘인간등급표’도 유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 20억 원, 연소득 2억 원 이상은 ‘금수저’로 분류하고, 자산 5억 원과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흙수저’ 등급, ‘은수저’와 ‘동수저’ 등급은 중간 정도이다.²³⁾

이렇듯 대다수의 한국 청년들에게 있어서 최상위 대학 진학은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계층적 도약의 기회일 수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걸어온 교육 자원은 종종 비싼 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부의 분배가 극도로 불균등하며, 위계분화가 심하며, 경제구조가 극도로 불균형하고, 계급이동이 극히 어려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절망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항상 긴장되고 두려움을 느끼며 사회생활에서의 좌절과 불안,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무능감과 불신으로 젊은 세대는 지치고, 숨쉬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다. 동시에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의 해체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감당하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큰 기계로 전락되었고, 사람들은 작은 부품으로 이화되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붙고 교환 가치가 모든 것을 대체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물리화되었고, 물리화된 개인은 주변의 모든 것을 상품 관계로 바라보게 되었다. 인간은 인간성에서 소외된다.

거대한 기계사회에서 계급의 고착화가 심각한데도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사회적 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의 목표는 대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높은 임금 수준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엄청난 생존 압박 아래,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시험 준비’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고 있다.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는 ‘삼성 수능’으로 불리며, 매년 10만 명이 지원하나 합격자는 4000명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4%이

23) 「인간등급」, 『경향신문』, 2015년 12월 02일자.

다. 한국의 상위 10대 기업은 전국 GDP의 75%를 창출하고 있지만, 고용 인구의 3%만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⁴⁾ 이는 치열한 경쟁 환경을 반영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과 불확실성을 체감하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학문을 통한 탈출이라는 유일한 길을 갖고 있다. 도전적인 고용 시장에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2. 신자유주의가 한국 여성 이미지 형성에 대한 영향

김홍중은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라는 논문에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주체는 ‘생존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생존자’는 엄격한 자기 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이며, 일상생활에서 보장이 부족한 다양한 불안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자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 ‘생존자’의 ‘생존’은 은유적인 개념으로, 대적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탈락’이다. ‘탈락’은 경쟁 상태에 기반한 개념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 상태는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생존’은 경제, 사회 및 생물학적 구조조정에서 탈락되지 않고 선택받는 소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 ‘생존자’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실업, 경기 침체, 그리고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로, 신자유주의 사회의 공공성이 약화됨에 따라 ‘생존자’ 주체는 경쟁에서 인정받는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며, 그는 ‘성공 지상주의’라는 사회 분위기에서 인정받아 사회적 생존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편협하고 획일적인 인정 메커니즘이 존재하여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속물적인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는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생

24) “韩式“发疯”：不生孩子，玩命考公”，*凤凰周刊*, 2023, 10, 17.

존을 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생존론은 건강과 삶을 상품화하며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지나치게 강한 집착을 나타낸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심지어 다이어트 프로그램마저도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 매체로 변모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잘 돌보아야만 ‘정상’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유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 여성들에게는 비만이 ‘변화하거나 숨겨야 할 문제’로 고정되어 있으며, 운동과 몸 관리는 새로운 자유주의 시민이 되는 수단이다.²⁵⁾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상태, 즉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건강한 사람만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완벽한 이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²⁶⁾

이것은 영화 <배틀로얄>이 신자유주의 세대에서의 인기작으로 부상한 이유,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한때 넷플릭스에서 대폭 성공하며 전 세계적인 시청률을 올린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정확하게 신자유주의 세대 현대인의 심리에 공감하며, 경쟁적인 게임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반드시 ‘강자’라 불리는 존재여야 한다. 그는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자연스러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하며, 끊임없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높은 지도력과 협조 능력도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대의 ‘생존자’는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의 완벽한 존재여야 한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며, 부, 사회적인 인정, 건강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생존자 이미지는 자동으로 신자유주의 세대의 미학적 아우라를 얻게 된다.²⁷⁾

25) Choi Y, “One is not born, but rather becomes, a Korean woman’: Gender politics of female bodies in Korean weight-loss reality TV show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54(8), 2019, pp. 1005-1019.

26) 김홍중,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2009, 173-212쪽.

위와 같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 및 개인 차원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스티디 브이로그에서 제시되는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고도로 산업화되고 분업화되고 표준화된 신자유주의 ‘기업 사회’에서 ‘목표’, ‘효율성’, ‘경쟁력’과 같은 용어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환경 영향 하에서 자동으로 흡수하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 여성은 학습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학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학원 등록, 교재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명확한 학습 단계를 정하고 이를 엄격히 수행하면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업적인 관리 방법은 이미 한국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에 내재화되어 있으며, 개인의 삶 역시 ‘기업화’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일상 기록에서는 잠, 공부, 식사, 심지어 여가와 취미까지도 모듈화된 관리 프레임워크에 편입되어 있다. 이 모듈화된 관리 방식은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삶에 대한 효율성과 목표 지향성을 강조하는 영향과 일치한다. 그들의 모든 생활 측면은 계획되고 조직되어 있으며,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조정되어 있어 치열한 경쟁의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노력’은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블로거 @Jennylog의 어느 ‘Study with me’ 동영상 배경 중 그녀는 로버트 콜리어(Robert Collier)의 명언을 인용했다. “Success is the sum of small efforts(성공은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반복되는 총합이다).” 이 문구는 단독으로 보면 눈에 띄지 않지만, 이를 신자유주의 사회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면 다른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상승 경로가 유난히 어려운 사회 속에서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제한된 상승 기회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서리지 않고 희생하며, 중국 네티즌들은 그들을 ‘목표가 명확하고 정서적 안정, 놀라운 실행력, 자신을 거의

냉혈하게 대한다’고 평가한다.²⁸⁾ 이런 노력 뒤에는 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비하는 신자유주의적 ‘생존자’ 의식이 뻗속까지 스며들어 있다. 그들의 목표는 시험을 통한 ‘상륙’이다. 왜냐하면 ‘상륙’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탈락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혹독한 생존경쟁은 시험을 준비하는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모든 삶의 목표를 학습에 집중하게 하고, 삶이 학습에 지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잠자는 것과 쉬는 것조차도 학습을 위한 서비스의 틀에 포함되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모든 행동은 ‘공부 - 시험에서 승리 - 의석 획득’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로, 스터디 브이로그에서의 한국 여성 이미지는 그들의 외모 관리, 스킨케어, 운동, 식이 건강 등 다방면에 걸친 관심과 함께 사회활동과 여행 등을 잊지 않고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생존자’의 이상적인 모델인 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 의미에서 탁월한 아이콘 이미지에 딱 들어맞다. 이런 이상적인 모델의 한국 여성은 부를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개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신자유주의 미학의 아우라를 갖게 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 여성이 스터디 브이로그에서 보여준 값진 전자기기, 오랫동안 세심하게 관리된 외모, 비싼 책과 학원비, 카페, 헬스장 등의 지출은 한 가정이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넉넉한 가정환경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부유함과 좋은 가정환경이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유효하며 긍정적인 칭찬과 인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신자유주의 미학의 아우라인 ‘경제적 풍요’의 이미지에 부합한다. 마찬가지로 의대생, 법대생, 공시생 및 ‘연세대’ 학생의 정체성은 잠재적인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전망을 나타낸다. 모임, 사교장의 연출은 한국 사회가 과거 공동체를 강조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과도 관련이

28) “发疯的韩国女孩，为什么这样？”，*澎湃新闻*, 2023, 10, 31.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조화능력과 교제능력의 전시이다. 스포츠, 피트니스, 영양에 대한 관심도 ‘건강’ 수준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한국 여성 이미지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늙름하다’, ‘성공하고도 열심히 한다’, ‘공부만 하고 헬스도 하고 외모 관리도 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분석해도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부유하고 인정받고 건강한’ 미학적 아우라의 이미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스티디 브이로그에서의 ‘한국 여성’ 이미지와 중국 사회

한국 여성의 스티디 브이로그는 처음에 중국 B사이트에서 전파되어 영향을 미치며, 그 후에는 샤오홍슈(小红书)²⁹⁾ 등의 SNS 소셜 플랫폼에서 논의되었고, 심지어 뉴스 보도에서도 주제로 등장했다. 활발히 논의된 핵심 키워드에는 ‘미치다’, ‘자율’, ‘효율’, ‘쥬엔’(卷)³⁰⁾ 등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여성 브이로그를 보고 공부 열망이 급증한다”, “한국이 정말 상속해야 할 것은 한국 여성 정신이다”, “그녀의 하루 공부량, 나는 일주일 동안 해야 한다”, “피로를 모르고 미래만 생각한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³¹⁾ 현재 한국 드라마에서 여성의 형상은 예전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보다는 사회 현실이나 여성의 권력 부여를 중심으로 한 냉혹한 소재들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 여성은 힘든, 적극적이고, 금지되지 않는, 때로는 선봉적인 여성 형상이 되었다.³²⁾ 중국 인터넷에서는 스티디 브이로그에서 이러한 한국 여성 ‘공식’을 극도의 자기 규율, 끝없는 야망, 미

29) 샤오홍슈(小红书): ‘중국의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며 이미지, 영상, 게시글의 해시태그 및 팔로잉을 통해 제품 소개, 리뷰, 추천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SNS 및 이커머스 결합 플랫폼이다.

30) 쥬엔(卷): 자발적으로 쥐어짜낸다. 자발적으로 착취하다.

31) “韩式“发疯”: 不生孩子, 玩命考公”, *凤凰周刊*, 2023, 10, 17.

32) “被调侃的“韩女”, 是一种东亚困境”, *新周刊*, 2024, 01, 27.

쳐버린 실행,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손을 놓지 않는 결단으로 요약한다.³³⁾ 중국 네티즌은 ‘미친 언니’를 평가하며 그녀가 혼자서 천마천왕의 기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강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인간성을 침해하고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인터넷 사용자는 ‘발광식’ 학습을 시도했고, 3시간 만에 요추 신경통 증상이 발생했다.³⁴⁾ 어떤 사람들은 한국 여성의 극한 노력이 한국 사회의 현실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며, 자신은 모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 특히 젊은 여성들은 여전히 이러한 ‘발광식’ 학습이 자신의 학습 욕구와 열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평론가는 젊은이들이 ‘학습으로 허망함과 불안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³⁵⁾ 중국의 젊은이들이 스터디 브이로그의 한국 여성에 빠지는 것은 현재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앞서 분석한 대로, 한국 여성이 보여주는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사회의 주체적 이미지이므로, 중국 사회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중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다. 1950년대 말, ‘대약진’(大跃进)과 ‘인민공사회’(人民公社化)의 결과로 중국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고, 1960년대 초반에는 좌파의 ‘돌진’ 경제 정책이 점차 수정되었으며, 정치적 분위기에는 여유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 배경 아래에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중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1966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중국은 문화 대혁명 시기에 접어들며, 신자유주의 학설은 국내에서 소리를 잃었다. 1978년에 중국이 문화 대혁명의

33) “韩女集体发疯：不生孩子，拼命考公”，*她刊*, 2023. 12. 06.

34) STUDY VLOG | 韩国公考生UDAN | 发疯姐 | 发疯学习教教主 | 合集搬运, https://www.bilibili.com/video/BV1gB4y1G7VS/?spm_id_from=333.337.search-card.all.click&vd_source=93c0375ad0a275297e1e7308caa751ad 댓글 부분. (검색일 2024년 03월 22일)

35) “卷过“韩女”的中国大学生，已经学疯了”，*新浪网*, 2023. 11. 09.

그림자를 벗어나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면서, 경제학계는 신자유주의 담론을 다시 시작했다. 이때 국제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의 전환을 겪고 있었다. 1986년, 중국은 도시에서 경제 제도 개혁을 시작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토론이 더욱 열렸다. 그러나 개혁이 시작되면서, 신자유주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정치적 자유화 사상과 개혁의 고통, 사회적 불평등, 이익 불균형 등이 결합되어 1980년대 후반에 정치적 폭동을 일으켰으며, 신자유주의는 잠시 침체 상태에 빠졌다. 1990년대 초반, 덩샤오핑(邓小平) 남쪽 순회 강연으로 중국은 다시 개혁 과정을 가속화했다. 1993년, 중국 공산당 제14차 대회에서 정당과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설 목표를 명확히 했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국제 시장 경제 체제에 더욱 빨리 통합되었다.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 이후, 새로운 정부는 개혁을 계속 심화시키고, 자원 할당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³⁶⁾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걸어왔으며, 국가 통제하의 시장 경제를 구축하여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경제 개혁은 환경 파괴, 사회 평등, 마침내는 어떤 불안한 일들을 가져왔다 - 부르주아적 힘의 재건이다.”³⁷⁾

앨빈 소는 “몇십 년 전에, 연구자들은 중국을 신자유주의 경제로 가는 중이라고 묘사했다. 이것은 집단 기업의 비집단화, 시장화, 재정 분권, 국영 기업의 사유화 및 기업화, 그리고 인간 서비스의 상품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최근 변화는 그것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정책 변화와 구조적 전환으로 인해 중국의 최신 발전 모델은 신자유주의 국가보다는 동아시아 개발국가에 더 가깝다.” 라고 주장했다.³⁸⁾

36) 谷月, ‘新自由主义如何进入中国?’, *社会科学文摘*(3), 2015, pp. 18-22.

37) 大卫·哈维,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王钦, *新自由主义简史*, 上海译文出版社, 2010, p. 122.

38) Alvin Y. So, ‘Globalization and the Transition from Neoliberal Capitalism to

1990년대에는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어 강력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때 중국은 해외 직접 투자에 강한 의존으로 인해 중국의 자본주의가 완전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내륙 지역의 무역이 매우 약하며, 광둥 등의 지방은 외국과의 무역이 내륙 지역보다 훨씬 많았다.³⁹⁾

그러므로 중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항상 상대적으로 모호한 상태에 있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중국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며, “중국 경제 변혁 초기에는 중국의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개혁가들이 경제의 자유, 시장 및 자본의 힘, 그리고 충분한 경쟁의 정신을 강조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⁴⁰⁾ 그러나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사상에 명백한 저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오하오(高昊)는 연구에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대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기 중심적 인디비주얼리즘의 대두와 실용주의 우월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⁴¹⁾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풍요의 세대’로 불리며, 그들의 성장 단계에서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목격했다. 고품질 도시화, 고등 교육 대중화, 인터넷 보급화 등 시대적 과정을 대표하는 ‘변영’과 ‘성장’,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개최, 중국 경제 총량이 세계 2위로 도약, 코로나19 대응 등 중요한 사건들로 인한 집단 기억은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국가와 민족 발전 길에 대한 높은 동의와 자신감을 형성했다.⁴²⁾

State Developmentalism in China’,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33(Special Issue), 2007, pp. 61–76.

朱怡颖, 沈海梅, ‘人类学家视角下的新自由主义研究全球图景’, *民族学刊* 11(4), 2020, pp. 1–12.

39) 大卫·哈维, *ibid.*, p. 126, 138.

40) 田春生, ‘中国需走出新自由主义影响的误区’, *人民论坛* (1), 2011, pp. 18–20.

41) 高昊, ‘新自由主义思潮对大学生不良影响及对策探究’, *现代商贸工业* 42(25), 2021, pp. 134–135.

42) 付宇, 桂勇, ‘当丰裕一代遭遇资产社会——解读当代青年的社会心态’, *文化纵横* (02), 2022, pp. 18–28, p. 158.

그러나 모순적인 점은, 젊은 세대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주저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성장한 후에도 ‘자산 사회’에서 자산의 중요성이 노동 시장의 성과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중국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시장화되지 않았던 자산 및 자원, 예를 들어 주택, 창업 활동, 공공 기반 시설 등이 금융화의 파도에 휩쓸려 다양한 계산 가능하고 거래 가능한 금융 자산 형태로 변모되어 자본의 순환과 회전 과정에 편입되었다. 초기 자산 소유량이 다른 집단 간의 부의 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자산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자산 사회의 후발자들은 무력감과 하위 계층감을 경험하게 되었다.⁴³⁾ 이러한 현실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탕핑주의’(躺平主义)⁴⁴⁾와 ‘996.ICU’⁴⁵⁾ 같은 다양한 아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순감은 사회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가 교차하는 중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갈등에서 비롯된다. “신자유주의는 최초로 발생한 순간부터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주요 위협으로 보고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상호 모순적인 이데올로기는 국가적으로 복잡한 중국에서 동시에 나타나며, 젊은이들은 사회주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의 침투 이후의 사회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모순적이다. 한편, 한국 사회는 완전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몇십 년을 거쳐 진행된 후, 신자유주의의 주체적 개인은 이미 매

43) Ibid.

44) 탕핑주의(躺平主义): 직역하면 똑바로 눕는다는 뜻이다. 2021년 중국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한 생활태도이자 생활양식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지기가 힘들더니 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스트레스도 안받고 어떤 부담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45) 996.ICU: 즉 일하기 ‘996’, 아프면 ICU. ‘996’ 근무제는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총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당 6일 근무하는 근무제도를 나타낸다. 이 근무제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서 흔한 초과 근무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46) 冉文伟, ‘新自由主义对大学生的消极影响及其原因分析’, *毛泽东邓小平理论研究*(7), 2007, pp. 38-42.

우 성숙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신자유주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국내 사회주의와 공존하는 모순적인 단계에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산 사회와 마주하게 된 후, 일부 젊은이들이 한국 여성과 같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주체 형상에 동경하고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자산 사회와 신자유주의 가치관에 적응하는 행동 특성이며, 성숙한 신자유주의 제도를 갖추지 못한 중국의 젊은이들은 거의 완전한 주체적 인지 성향을 가지지 않고, 아직은 혼돈의 탐색 단계에 있다. 신자유주의의 개인주의, 합리성, 능력 향상 및 물질적 이익에 대한 강조는 어느 면에서 현재의 혼란과 방향에 대항하고 모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삶의 도전에 완전한 주체적 태도로 대처한다. 많은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매우 매력적이다.

스타디 브이로그 속의 ‘한국 여성 정신’이란 중국 청년들의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한국 여성’은 노력과 자기 규율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며,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가속된 시간 체제에서 싸움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힘써 최종적인 인생의 승자가 되려고 한다. ‘죽지 않는 한 학습하라’는 결단된 행동으로 예측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대항하여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도록 장려한다.

V. 나가며

우리는 한국 여성을 관찰하고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사회가 젊은 세대의 생존 관념과 행동양식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은 개인 투쟁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공과 생존에 대한 전체 사회 환경의 극단적인 추구를 반영한다. 기업화된 라이프스타일은 신자유주의의 틀에서 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면서도 삶의 표준화와 기계적 느낌을 동반한다. 개인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삶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상실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시험에 맞추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에 기대는 것은 사실상 개인을 기계처럼 다루고 사회의 메커니즘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은 일종의 ‘금송아지’ 아이콘이 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굴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미친듯’ 학습 행동은 표면적으로 근면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지만 본질적으로 도태되어 이길 수 없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여성의 스테디 브이로그가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이들의 스케줄에 대해 지나치게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고강도 뇌 사용과 심각한 수면 부족이 돌연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실, 이러한 학습 과몰입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스테디 브이로그 속의 한국 여성 이미지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인 신자유주의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두려움과 불안도, 긍정적인 측면인 신자유주의 사회가 만들어 낸 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성공모델의 아이콘, 이 이미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현실 세계에서의 불안과 강력한 사회 경쟁 시스템에 대처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려는 태도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 사회 시스템에서의 승자 지도에 따르면, 그들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건강한 역할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서로 교차하며, 우리가 스테디 브이로그에서 보는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그들은 바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 상태와 성공 모델의 축소판인 것이다.

한국 여성은 중국의 공론장에서 주목받는 현상이 되었다.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중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자본 사회 환경에서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는 완전한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의 단호한 목표 의식, 강력한 실행력, 외모, 운동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삶의 자세에 중국의 젊은이들은 감탄하고 찬사를 보낸다.

참고문헌

- 권용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재구성 시도」, 『사회와 철학』 제28호,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 김경준·이운석,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탈도덕화: 공평성, 순수성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5권(제2호), 2021.
- 김동춘,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 서울: 길, 2006.
- 김홍중,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2009.
-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제」, 『경제와 사회』 제84권, 2009.
- 석승혜·장안식, 「사회집단への 소속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9권(제3호), 2016.
- 윤지영·유지운·이상석, 「유튜브 브이로그 이용 동기 및 이용자 특성이 이용 만족 및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제4호), 2020.
- 大卫·哈维,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王钦, 新自由主义简史, 上海译文出版社, 2010.
- 付宇, 桂勇, ‘当丰裕一代遭遇资产社会——解读当代青年的社会心态’, 文化纵横 (02), 2022.
- 高昊, ‘新自由主义思潮对大学生不良影响及对策探究’, 现代商贸工业 42(25), 2021.
- 谷月, ‘新自由主义如何进入中国?’, 社会科学文摘 (3), 2015.
- 孔姝潼, 于鹏亮, ‘B站学习生活类视频博客对粉丝群体的影响——以UP主彭酱酱为例’, 国际公关 (04), 2022.
- 李宁, ‘后经济危机时代新自由主义在韩国的发展’, 辽东学院学报: 社会科学

版 12(6), 2010.

冉文伟, ‘新自由主义对大学生的消极影响及其原因分析’, 毛泽东邓小平理论研究 (7), 2007.

田春生, ‘中国需走出新自由主义影响的误区’, 人民论坛 (1), 2011.

武怡静, ‘媒介景观视域下学习类Vlog的“自律”塑造与呈现——以b站学习类Vlog为例’, 华东师范大学硕士, 2023.

于畅, ‘传播学视域下B站学习记录类Vlog的传播逻辑与发展前景探析’, 新闻文化建设 000(009), 2021.

朱怡颖, 沈海梅, ‘人类学家视角下的新自由主义研究全球图景’, 民族学刊 11(4), 2020.

Alvin Y. So, ‘Globalization and the Transition from Neoliberal Capitalism to State Developmentalism in China’,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33(Special Issue), 2007.

Choi Y, ‘“One is not born, but rather becomes, a Korean woman”: Gender politics of female bodies in Korean weight-loss reality TV show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54(8), 2019.

「인간등급」, 『경향신문』, 2015년 12월 02일자.

“早上5点起, 每天学习10h+: 学习博主们为什么还上不了岸?”, 娱乐资本论, 2023. 09. 15.

“自律的韩女, 成了年轻人的新榜样”, Vista成长实验室, 2023. 10. 31.

“韩国式“发疯”: 不生孩子, 玩命考公”, 凤凰周刊, 2023. 10. 17.

“发疯的韩国女孩, 为什么这样?”, 澎湃新闻, 2023. 10. 31.

“被调侃的“韩女”, 是一种东亚困境”, 新周刊, 2024. 01. 27.

“韩女集体发疯: 不生孩子, 拼命考公”, 她刊, 2023. 12. 06.

“卷过“韩女”的中国大学生, 已经学疯了”, 新浪网, 2023. 11. 09.

学不进去就看看韩女vlog! 10个韩国学习博主激发学习欲!

https://www.bilibili.com/video/BV1v8411i7LB/?spm_id_from=3

33.337.search-card.all.click&vd_source=93c0375ad0a275297e1e7308caa751ad

STUDY VLOG | 韩国公考生UDAN | 发疯姐 | 发疯学习教教主 | 合集搬运,
https://www.bilibili.com/video/BV1gB4y1G7VS/?spm_id_from=333.337.search-card.all.click&vd_source=93c0375ad0a275297e1e7308caa751ad

〈ABSTRACT〉

The Image of Korean Women in Study Vlogs That are Making Waves in China

Tan, Yuqian

Recently, Korean women and their Study Vlogs have been discussed on Chinese social media. These videos document the long study hours of young Korean women and showcase their resolute goal-setting and excellent execution skills. They are praised for their efforts in various aspects such as studying, appearance management, health maintenance, social activities, and travel, earning them the title of “digital chicken blood”. However, this Korean female spirit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South Korea’s neoliberal society. From a negative perspective, the strong social competition in neoliberal society instills fear and anxiety in individuals, who must constantly strive and improve. On the other hand, from a positive perspective, neoliberal society creates an idealized image of success in economic, social, and biological aspects, encouraging individuals to pursue wealth, social recognition, and prioritize health. These Korean women symbolize the survival and success model in a neoliberal society. China’s neoliberalism started relatively late and is currently in a contradictory stage coexisting with socialism. Young people accept socialist ideology while facing the social reality of neoliberalism, leading to feelings of anxiety and confusion under the two conflicting ideologies. The lack of neoliberal subjectivity among Chinese youth is fully demonstrated through Korean women, thus evoking admiration towards them.

Key Words : Study Vlog, Image of Korean Women, Neoliberalism,
Social Competition, Socialism